

과학적 기후위기 대응의 이정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확산 가속화

- 기상청,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 및 활용 설명회' 개최(6.30.)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7차 평가보고서 대응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 계획 등 선제적 안내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학계 등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 산출과 활용을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 및 활용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6월 30일(화) 오후 2시, 대전정부청사(3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지난해 9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때 표준시나리오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화되었다. 관련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생산과 활용을 담당하는 38개 기관*의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열의를 보였다.

* 중앙행정기관 8곳, 공공기관 11곳, 지방정부 10곳, 학계·기업 9곳

설명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7차 평가보고서(AR7)에 기반한 표준시나리오의 생산 계획과 함께 시·공간 해상도, 산출 변수 등 표준규격을 공유하였다. 또한, 올해 예정된 승인심사 일정을 안내하여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있거나 승인심사를 준비하는 기관들이 효율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아울러 표준시나리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보 제공 창구인 '기후변화 상황지도(climate.go.kr/atlas)'의 활용 방법도 소개하였다. 현재 기후

변화 상황지도에서 제공 중인 방재·산림·농업 등 다양한 부문의 기후변화 영향정보와 현장에서의 우수 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표준시나리오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이미션 기상청장은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이상기후의 발생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객관적이고 일관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설명회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다양한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표준시나리오 활용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표준시나리오가 기후위기로부터 더욱 안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후과학국 기후위기협력팀	책임자	과 장	김지현 (042-481-9600)
		담당자	사무관	심성보 (042-481-9602)

